

# 김룡 “수상소식 들었을 때 ‘참회록’ 떠올라” 강주 “운동주 이름에 누 안되는 시인될 것”

제5회 동주문학상 공동 수상 김룡·강주 시인 인터뷰

제5회 동주문학상에 선정된 김룡 시인은 “운동주란 이름이 걸린 상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더없는 영광이다. 수상소식을 들던 날 밤 부끄럽게도 술집에 있었다”며 “어지간히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가 쓴 ‘참회록’이란 시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공동 수상자인 강주 시인은 “오늘의 이 기분을 평생 잊지 않고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운동주 시인은 깊고 맑고 그윽하다”며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없이 ‘달을 쓰는 시인’이고 싶다”고 말했다.

두 시인은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수상 소감과 운동주 시인에 대한 단상, 문창 시절 등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제5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김룡= 평소에도 인간으로서의 성찰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수상 소식을 듣는 순간 더욱 뜨겁게 다가왔다.

▲강주= 소식을 듣고 공원을 걸었는데 자주 달을 쳐다보았다.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달빛은 유난히 맑고 고요해서 저절로 차분해졌다.

-이번 수상 작품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김룡= 고향? 어머니 혹은 사랑에 대한 슬픔과 아픔? 솔직히 쓴 시들이 너무 진부해서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다... 나란 인간의 본질을 검은색으로 놓고 검은색이 아닌 빛깔들을 뿜어뜨려놓고 싶었다. 그 빛깔들이 고향이든 사랑이든.

▲강주= 대부분의 시들이 늦은 밤과 새

벽 사이에 쓴 시들이고 어둡고 슬프고 아프지만, 어둡고 슬프고 아프지만은 않게 빛과 리듬과 발랄함이 반짝이길 바랐다. 엄살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현실과 직면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운동주 시인의 작품과 그의 삶이 오늘

▲김룡= 정지용 시인이 쓴 서문이 떠오른다. “청년 운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적(日賊)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 1947년 12월 28일 쓴 이 서문을 달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나온 날짜는 이듬해 1월 20일이다. 운동주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옥사한 날(1945년 2월 16일)부터 약 3년 뒤였다.

그러니까 운동주 시인의 작품과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현실적인 삶과 역사의식 그 너머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검은색입니다, 세계가 그렇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당신만 보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강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그의 작품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다시 곱씹어 사유할 수 있는 여운으로 가득하다. 시에는 시인의 결이 고스란히 묻어나기 마련이다. 저마다 무늬를 가지는 것처럼 새겨지는 것 같다. 바쁜 현대일수록 잠시 멈춰 침묵하고 고요를 회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시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다.



김룡 시인

문학청년 시절 어떻게 창작 공부를 했다.

▲김룡= 독학. 혼자서 아프고 혼자서 낫고 다시 아프고, 읽고 쓰는 것보다 그게 먼저였던 것 같다. 무지 외로웠던 것 같다. 이런 게 시가 되나, 이런 걸 시라고 해도 되나, 하고 의구심을 가졌지만 물어볼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난 아직도 문창이고 시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부족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강주= 책을 좋아해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퇴근하고 도서관,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주로 읽고 썼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가 더 이상 미루면 영영 시를 못 쓰겠다 싶어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시 쓰기에 몰두했다. 무모했을 건 몰라도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과감하게 가난을 선택했다. 쓰면 쓸수록 잘 모르겠는 시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혼자 쓰느라 어렵고 긴 시간을 보냈다.

-어려운 질문인줄 알지만 시란 무엇인가? 아니 시를 왜 쓰는가?



강주 시인

▲김룡= 실재가 예정된 삶의 흔적 아니 (흔적이란 단어가 가진 색이 추상적이고 평범직한 느낌이라서), 사소한 삶의 기적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부리가 섰노라 말뚝거리 두어 마리 데리고’란 작품에서 ‘마음은 찢어지는 게 찢어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메리 올리버의 글을 인용했는데, 제게 시는 이 한 문장으로도 간당간당 위태로워지는 ‘숨’이라고나 할까 싶다. 스스로 찢어지지 않고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주= 일단 시를 쓰려고 앞으면 대부분 슬픔부터 밀려온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펜을 잡거나 키보드를 누를 때 왈칵 슬픔을 쏟아낸다. 펜 속에, 키보드에, 시를 쓰면서 그 슬픔이 정화가 되기도 하고 더 큰 슬픔에 휩싸인다. 그래서 시를 쓸 때마다 좀 힘들다. 한 편 쓰고 나면 땀가 나를 땀고 일어난 느낌이 들기도 하며 시를 쓰면서 안팎을 들여다보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올 들어 가장 기뻐던 일 중의 하나가 ‘예향’의 복간 소식이었다. 십일년 전 ‘예향’이 무기휴간된다는 소식이 적잖은 충격이었다. 무기휴간이라는 것은 한낱 미명처럼 보였으며, 광주와 전라도의 문화예술이 자본의 논리 앞에서 영원히 사장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중략). 부디 ‘예향’이 그 맥을 이어가며 지역과 세계가 상생 보완하는 소통과 공감의 아카이브가 되길 기원한다”(소설가 이미란·전남대 교수)

지난 2013년 ‘예향’ 4월호의 ‘복간 기념 특별기획’에 실린 지역 명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2002년 209호를 끝으로 잠정 휴간됐던 ‘예향’이 다시 시민들

‘예향’이 10월호로 통권 300호를 맞았다. IMF 경제 한파로 인해 발행을 중단했던 공백기 11년 2개월까지 포함하면 꼭 36년 만의 일이다. 지역의 문화 예술잡지로선 처음있는 일로, 문화수도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쾌거다.

사실, 이미지의 시대에 수십 년간 잡지를 발행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국내 잡지사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사라진 매체들이 많다. 80-90년대 큰 인기를 모았던 ‘샘이 깊은 물’과 ‘뿌리 깊은 나무’ 등 유수의 잡지도 아쉬움을 뒤로 하고 폐간했다.

지난해엔 전국구 잡지인 월간 ‘샘터’가 12월 통권 598호를 끝으로 무기휴간을 선언했다가 국내외에서 밀려든

## ‘예향’ 통권 300호를 맞으며

거뿐다. 독자들은 지난 1984년 10월 창간호를 비롯해 17년간 함께 해온 예향의 제 맛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간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새로운 얼굴로 ‘컴백’한 예향에 대한 격려와 기대는 벅찼다.

“인더넷 시대를 설명하는 극명한 용어는 ‘이미지의 등극, 활자의 소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위한 정기간행물을 만드는 것은 모험심이 아니라 사명감일 것이다. ‘예향’은 광주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광주사람들의 가슴에 녹아 있는 체질적 언어이다. 그것을 간행물의 제목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예향’잡지의 복간이 아니라 재창간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향은 광주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미미한 창구역할을 넘어서야 문화수도 광주를 선도하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잡지

격려와 응원에 두손을 들었다. “내 결 다정한 동반자를 잃어버린 느낌이 다.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던 다정한 친구였는데...” “비록 갈려있는 처지이지만 사회에 남아있는 돈을 익명으로 기부하겠다. 반드시 샘터를 계속 내달라.” 독일에서 보낸 파독 간호사 출신의 손편지에서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의 사연은 발행인의 통근 ‘약속’을 이끌어냈다. “2020년, 50년의 ‘샘터’는 휴간없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굳이 ‘샘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시대에 잡지를 발행한다는 건 간단치 않다. 더 이상 인쇄매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종이잡지를 되살려내는 건 역설적으로 한명 한명의 독자들이다. ‘예향’ 역시 그러하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동주해외작가상 한혜영, 해외작가특별상 손용상, 해외신인상 김소희

동주문학상 본상과 함께 동주해외작가상과 동주해외작가특별상, 동주해외신인상 수상자로 가려졌다.

동주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다. ‘검정사과농장’ 외 4편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한혜영 시인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1996년 본국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다. 시집 ‘태양을 다리는 세탁소’, ‘뽕 잡는 여자’ 등을 펴냈으며 동시집 ‘개미도 파출소가 필요해’ 외 다수의 동화책을 펴냈다.

한 시인은 “호수가 어는 것을 막으려고 밤새도록 날갯짓하는 청둥오리와 이만자

는 많이 닮았다. 그만큼 의롭고 고단한 것이 이 민생활동이다. 이번 수상으로 위로를 얻으니 참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해외에 거주하며 운동주의 민족애에 대한 깊은 뜻을 펴나가는 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손용상 시인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조선일보 신춘문예(1973)에 소설이 당선돼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한혜영 시인



손용상 시인



김소희 시인

미주문학상, 미주기독교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손 시인은 “20대에 신춘문예를 통해 비교적 화려(?)한 등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 40여년을 ‘글쟁이’로서의 그 맥을 이어가지 못했다”면서도 “때늦게

철(?)이 들어다시 펜을 들고 머리에 녹을 뒀다. 이번의 수상은 실재했던 내 인생에서 다시 싹튼 문학이 마지막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한 동주해외신인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의 활동무대를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국내·외 시단에서 활동을 하며 해외 시단과 국내 시단이 연결되는 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다. ‘흰 코끼리 같은 언덕’으로 신인상을 수상한 김소희 시인은 “수상을 계기로 더 좋은 시를 쓰고 문학의 경계를 넓혀가고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빛소리오페라단 ‘클래식...’ 오늘 광주아트홀서 공연

(사)빛소리오페라단이 기획공연 ‘클래식! 드라마와 놀다’를 선보인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아트홀.

이번 공연은 광주아트홀 페이스북에서 생중계 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드라마와 놀다’는 드라마에 나왔던 클래식 명곡들을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해설을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공연에서는 드라마 ‘밀회’, ‘왕이 된 남자’, ‘베르벤 바이러스’, ‘최고의 사랑’, ‘천국의 계단’ 등에 나오는 곡을 들려준다.

총감독은 최덕식이, 해설은 박미애가 맡았으며, 피아니스트 천현주, 소프라노 윤희정, 테너 이원용, 바리톤 김대수 등이 출연한다. 무료관람. 문의 062-227-7440.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번지호우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학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공택  
☎ 010-4755-9294

###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방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정, 상속, 증여등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타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 평화의자소파

북구 운암동 794-13(대창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압소용제작 천갈이  
리폼전문 각종소파 천갈이 수리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 응추해신심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공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분위  
☎ 062)233-5155, 010-3615-5155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태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전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분위  
☎ 010-2474-1457

###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 대연건설

동구 계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작·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오래오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매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곡·홍삼·생약초제품 봉어즙·장어즙  
땀발증·취침·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장,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 머리해요(미용실)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암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코리너50,000원 셋팅펌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